

카라마조프의 형제 -상/중하/ [줄거리 모음] 인터넷 자료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김학수 옮김/범우사

도스토예프스키가 만년에 쓰다가 다 완성시키지 못한 작품이다. '작가로부터'에 이 소설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그는 결국 첫 번째 이야기만 완성한 후,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완성작이다. '작가로부터', '전 12장', '에필로그'로 구성.

이 소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은 있는가, 죄란 무엇인가.

돈과 여자에 욕심이 많고 난폭한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전처의 아들인 드미트리(미차), 후처의 아들인 이반과 알렉세이(알료샤). 정열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퇴역 장교 드미트리. 이성주의자이고 무신론자이고 지식인인 이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자 신학생인 알렉세이. 표도르는 자유분방한 여인 그루셴카와 재산 문제로 만아들인 드미트리와 자주 싸운다. 드미트리에게는 약혼녀인 카테리나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루셴카를 사랑한다. 그의 약혼녀는 이반이 사랑한다. 아버지 표도르가 살해되고, 그의 돈이 사라진다. 살인범으로 몰린 드미트리는 결코 아버지를 죽일 마음은 있었으나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다. 표도르를 죽인 범인은 드미트리가 아니라, 스메르자코프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고 자살하고 만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드미트리의 양심(아버지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일 마음을 품었다는 죄책감)이 중심이겠다.

그러나, 이 소설의 핵심은 이반이 동생 알렉세이에게 들려주는 "대심문관(大審問官)"이라는 제목의 자작 서사시다. 이 서사시의 내용은 종교재판이 성행하던 시기에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켜 민중의 인기를 끌자 대심문관이 예수를 잡아 심문하는 것이다. 이 심문에서 대심문관은 죄수에게 "위대한 악마가 광야에서 당신과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소. 성경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악마가 당신을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오?" 라고 묻는다. 세계와 인류의 미래사를 표현한 세 가지 질문. 하나, 이 황야의 돌을 빵으로 바꾸어라. 둘, 궁전의 정상에서 몸을 던져 보아라. 셋, 악마인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지상의 모든 왕국과 영화를 주리라. 이 세 가지 악마의 제안을 거부한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인간은 양심의 자유 같은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의 자유와 맞바꾸어 빵을 줄 상대를 찾아 헤매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하고 빵을 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는 세 개의 힘 위에 지상의 왕국을 구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문열의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에도 나온다. 아하스 페르츠가 광야에서 예수에게 "그럼, 먼저 하나 묻겠소.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오. 당신은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 수 있소? 다시는 저들이 빵이 모자라서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해줄 수 있으시오?" 라고 묻는다.

'사람의 아들'의 주인공인 아하스 페르츠는, 4-5세기 로마의 고행자로서 명문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 아내와 화목하게 살았으나 생각한 바가 있어 가출하고 황야에서 수행을 쌓은 신의 아들 알렉세이 전설과 비슷하다. 알렉세이 전설을 이문열 씨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설 '사람의 아들'의 주인공 아하스 페르츠로 지은 것이다.

이야기가 흥미로운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보여주는 여러 생각이 흥미로운 소설이다. 이야기보다는 생각에 몰입하는 독자를 위한 소설인 셈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저 / 이대우 역 / 열린책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우선 그 책과의 만남 자체가 쉽지가 않다.

책의 두께에서 오는 중압감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문장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인류가 쌓아 온 많은 꿈의 파노라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문학은 특히 그 땅덩어리의 넓이만큼이나 양과 질적으로 방대함을 자랑한다. 러시아문학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19세기의 쌍두마차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는 비단, 러시아 뿐 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작가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으리라.

19세기를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밖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사상의 여파로 많은 인텔리겐차들이 개혁을 부르짖었고 안으로는 러시아의 근대화를 막고 있는 두 가지 제도 즉, 농노제와 관료제의 병폐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상을 톨스토이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민중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글을 썼는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보다 더 개인적이고 인간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글을 쓴 작가였다.

특히 그의 많은 작품 중 인생의 말로에 쓴 카라마조프가 형제는 그의 사상과 철학이 총체적으로 녹아든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인간은 지고한 사상을 가짐으로서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세계가 불합리하게 창조되었을진대 그래도 조화로운 미래를 기대 할 수 있는가?

이 두 개의 화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선과 악을 과연 인간의 잣대로 평가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인물을 살펴보자.

물욕과 음탕의 상징인 아버지 표도르와 러시아 적인 야성적 정열과 순수함을 지닌 장남 드미트리, 무신론자에다 허무주의적 지식인 차남 이반,

신의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3남 알료사, 거기에 아버지와 백치의 여자거지에게서 태어난 막내아들 스메르자코프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독자들의 머리 속에 아무런 육체적 특이성을 남겨주지 않는다. 간혹 그들이 입은 옷이나 모습에 대하여 서술하기도 하지만 이내 곧 잊혀지고 만다. 이들을 창조해 낸 작가의 관심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으며 인간과 그 너머의 미지의 실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각각의 객체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서로 다른 사상을 끝없는 대화와 행동으로 줄거리

를 엮어 나간다.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대화가 중요 시 된다는 것은 그러한 대화나 행동을 가능케 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세계 즉, 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 작가의 시선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사건의 중요성 보다 각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글읽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설의 외형적 줄거리의 핵심은 친부 살해에 있다.

큰아들 드미트리이는 아버지 표도르와 그루센카라는 고급 창녀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하여 재판에 회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범인은 간질병의 특성을 알리바이로 이용한 스메르자코프의 범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존경하는 이반의 사상적 감화를 받고 그 사상적 의미의 실천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정작 소설의 주된 주제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반의 철학과 신의 믿음 아래서 인간에게 고결한 사랑을 실천하는 알료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대립에 있다.

작가의 공감은 러시아의 미래를 상징하는 알료사의 깨끗한 영혼에 기울지만 신이 창조한 세계의 불합리와 모순에 관하여 역설하고 이 모순이 있는 한 미래에 다가올 지상의 천국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반의 반론이 훨씬 박력 있게 다가온다. 특히 중세기에 지상에 재림한 그리스도가 교권에 거부당했다고 말한 이반의 극시 '대종교 재판관'은 이반의 철학적 사상의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 존재 유무와 선과 악에 대한 끝없는 성찰과 고민을 요구 해 온다. 선부른 결론이 갖는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편협함과 어리석음을 갖는지 작품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선을 추구하면서도 악의 유혹을 받으며, 신을 믿으면서도 존재의 의혹을 갖고, 신을 부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나약함을 갖고 있다. 어쩌면 신이 만들어 낸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태초의 완전한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자유의지'를 방종과 타락으로 실천하지 못한 채 현실의 고통을 신에게 돌리는 건 아닌지.

그러나 여기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현실의 고통을 기꺼이 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고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에 대한 신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문제는 신에게 있지 않고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자아와의 고통 있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